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른 의복 구매 성향 및 의복 사용 조사 연구

류 숙 희[†]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urvey on Clothing Buying Tendency and Clothing Us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ok-Hee Ryou[†]

Dept. of Clothing &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2003. 1. 20. 접수; 2003. 3.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clothing use by clothing buying tendencies.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183 housewives in Daegu, and analyzed by utilizing Factor Analysis, frequency, correlation and ANOVA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ur factors of clothing buying tendencies were identified as the pursuit of fashion, dressing for others, practicality, and dressing for self.
2. There was differences in clothing buying tendencies based on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The factor of the pursuit of fashion was more important for college graduate housewives. It was also more important for housewives whose husband had professional jobs in comparison to their non professional counterparts.
3. The factors concerning the pursuit of fashion and dressing for others were more important for those whose monthly household incomes ranged from 3,000,000 to 4,000,000 won in comparison to those whose incomes were lower.
4.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actor of dressing for others and the number of children.
5. The housewives had a higher clothing expenditure were more aware of the pursuit of fashion and dressing for others.
6. The data concerning the number and types of various clothing owned showed single items were the most owned(more than 8 items) and altered Hanboks were the least owned(less than 1).

Key words : clothing buying tendency(의복구매 성향), dressing for others(타인지향성), dressing for self(자기중심성), practicality(실용성), pursuit of fashion(유행 추구성).

I. 서론

1. 연구의 의의

과거의 의복은 신체보호 등 인간의 기본욕구를

본 연구는 1999년도 계명대학교 부설 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E-mail : hyoosh@kmu.ac.kr

충족시키는 생활필수품으로서 반영구적인 재화로 여겨졌으나, 요즘은 하나의 소비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의복 자체의 주요 기능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활동범위가 다양해지며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유행전파와 섬유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사회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즉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사회의 다원화로 인한 사회참여의 확대에 여성의 힘이 향상되고 있다.¹⁾

한편 농경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였던 가족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은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소득의 향상으로 인하여 의복의 기능이 생활 필수품에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의복선택이 단순·내구적 소비에서 점차 '패션상품' 소비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과소비적' 의류소비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세대간에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의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면서 가족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가계 지출의 주체자로 남편과 자녀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유봉로²⁾에 의하면, 상품구매시 주권자는 약 80% 정도가 여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계 지출의 주체자인 주부의 의생활 태도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의생활에 대한 실태를 포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의생활의 합리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복의 대외적 기능 강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의생활 환경 변화가 의복의 종류와 양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의복의 물리적 수명과는 관계

없이 외관적 수명에 의해 착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의복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의생활 전 과정의 합리적 경영이 요구된다.

송미령³⁾은 서울, 부산, 대구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구매행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의복과 타 소비재와의 소비 연관 관계, 개인 가치관 등의 영향력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미흡하여 의생활의 종합적 고찰에는 미치지 못했고 의생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의복구매 성향을 분석해 의복소지 및 활용과 사장의복 등의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의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생활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의류자원 절약과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의 구매동기와 의복행동

Form과 Stone⁴⁾은 white collar 노동자는 blue-collar 노동자보다 의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의복에 대한 지출도 많으나 의복의 부족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Kundell⁵⁾은 blue-collar 노동자들은 직업에 만족할수록 직장에서 포말한 의복을 착용하며, 직장에서 착용하는 의복에서 중요성이 높은 측면은 안락감, 맞춤새, 가격이었고 중요성이 낮은 측면은 최신 유행형, 타인과 비슷한 의복, 아내가 좋아 하는 의복 등의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호⁶⁾의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의복의 중요성이 30대에서만 정적 상관이

1) 김태배,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부가 인식한 부부역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 유봉로, "판매전략을 위한 시장세분화 연구", 연세논총 제 9집(1972), pp.135-180.

3) 송미령,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서울, 부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제12권 1호(1988), pp.53-68.

4) Form, W.R. & Stone, G.,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2 (1957), pp. 504-514.

5) Kundell, C., "Clothing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blue-collar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4(1976), pp. 225-234.

6)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형태: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제2권 2호(1978), pp. 45-51.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선택시 심미성 기준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실⁷⁾은 경제수준, 교육정도, 남편의 직업 등을 고려한 지위 불일치 수준이 높은 서울의 가정주부는 의복의 신분 상징성 및 유행에 관심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지위 불일치가 커 불안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의복을 통하여 자신과 상류계층을 동일시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Morganosky⁸⁾는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 중 소득만이 의복소비의 가치와 관계를 보여 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의복의 기능적 가치를 덜 중요시하고 심미적 가치를 더 중요시한 반면 소득과 패션가치와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선화와 임숙자⁹⁾는 직업에 따른 의복 동조성 및 신분 상징성, 경제성은 서로 차이를 보여 의복 동조성은 운전사 집단이 최저, 교수집단이 최고이며 의복의 경제성은 기업간부집단이 최저, 공원집단이 최고라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신분 상징성은 학력과 정적 상관을 보여 대졸 학력자가 신분 상징성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졌고, 학력과 의복의 경제성은 부적 상관을 보여 중졸 이하에서 의복의 경제성에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경남과 이인자¹⁰⁾는 사춘기 여학생의 가정 경제수준과 의복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 의복의 동조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춘기 여학생의 의복인식도, 의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의복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구매동기는 '필요'에 의해¹¹⁾, '유행추구'와 코디네이션을 위

해, 할인기간 이용 및 '사교상 필요성을 느껴서' 등이 보고되었고, 기혼여성들이 미혼여성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였다. 엄정은, 이명희¹²⁾에 의하면 여성의 의복구매동기는 '그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므로', '색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비교적 모든 옷에 다 잘 맞춰 입을 수 있는 옷이어서' 등이 높은 동기 순으로 나타났고, '판매원이 권하므로', '친구나 주위사람들의 옷차림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나 텔레비전 등의 광고의 영향으로' 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향을 알기 위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며 점포에 들러 제품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새로운 경향을 알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감각적 자극을 즐기기 위해 쇼핑함으로써 오감을 통해 점포의 분위기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 동기에 비해 소비자는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도 쇼핑을 하는데, 개인이나 가정 이외의 사회적 경험, 유사한 흥미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 준거집단에 대한 관심,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식, 흥미와 즐거움 등으로 쇼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의복구매동기는 이러한 의복선택동기와 쇼핑동기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은주¹³⁾는 의복구매 과정에서 구매전 의도에 나타나는 상황변수를 구매의 전제가 되는 의도된 착용상황으로 규정하여 뚜렷한 정장과 모호한 정장으로 착용상황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뚜렷한 정장상황의 경우에는 구매시의 날씨, 소비자의 기분이나 시간적 여유, 상점내의 복적임, 쇼핑 동반자인 친구나 가족, 점포의 분위기, 다

7) 이금실, 강혜원,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서울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제2권 2호(1978), pp.79-86.

8) Morganosky, M.A., "Aesthetic, Function, and Fashion Consumer Value: Relationships to other value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6 No.1(1987) pp.15-19.

9) 이선화, 임숙자, "성인남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제8권 3호(1984), pp. 43-56.

10) 이경남, 이인자, "사춘기 여학생의 의복의 동조성, 인식도, 만족도와 가정배경 및 학습내 인기도간의 상관관계", *한국 의류학회지* 제10권 1호(1986), pp.19-26.

11) 김애련, "사회계층과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2) 엄정은, 이명희, "여성의 의복구매동기와 구매 후 불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4호(1995), pp.315-327.

13) 박은주, "의복착용상황과 소비자특성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인과적 관계", *복식학회지* 제26호(1995), pp. 145-162.

스플레이 등이 구매에 영향을 미쳤으며, 할인 판매 시에 구매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호한 정장 상황의 경우에는 날씨나 소비자의 기분, 과도한 현금의 소유 등이 구매에 영향을 미쳤으며, 점포에서 신용카드나 할부티켓 같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켜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리고 판매원이 권하거나 오고가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 상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부들은 의복구매시에 의도하는 착용상황에 관계없이 소비자 상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계선자¹⁴⁾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결혼지속연수가 짧고, 가족 수가 적고, 남편과 부인의 직업이 사무·전문직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이 충동구매의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 한편 기혼여성들은 사회적 배경이나 광고에 의해서보다는 제품자체특성, 상점분위기, 심리적 변화에 의해 충동구매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의복관리실태와 사장의복

구입, 소지, 사용, 보관, 폐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의복제품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의복관리실태에 관한 연구¹⁵⁻¹⁸⁾들은 의복소지 및 사용실태를 단편적으로 다루었다.

로 다루었다.

착용하지 않는 의복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¹⁹⁻²²⁾에서 '유행에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실증, 구매 과다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등과 같은 이유로 나타났다. 김병미·이재명²³⁾의 연구에서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 오래 입고 낡아서, 디자인/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행에 뒤떨어져서의 순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사장되고 있는 의복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친척,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준 경험이 있거나 주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²⁴⁻²⁷⁾, 그 밖에 고쳐서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하거나 그대로 보관하거나 폐품업자에게 판다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의류제품 그 자체의 물리적 효용감소나 사이즈 변화와 같은 실질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유행, 실증과 같은 기호적인 이유로 수명이 남아있는 의류제품을 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숙·구은영·조필교²⁸⁾의 연구에서는 값 비싼 의복을 구입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의복소지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과 어머니의 의복사장율이 아버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율에는 소득과 연령이, 사

- 14) 계선자, "기혼여성의 충동구매행동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논문집* 34호(1993), pp.3-25.
- 15) 이금실, 문영애, 주부들의 의복행동과 피복관리에 대한 태도 및 관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1호(1984), pp. 87-97.
- 16) 신은주, 차옥선,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 9집(1991), pp.5-23.
- 17) 신상옥, "도시주부의 의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3호(1976), pp. 879-889.
- 18) 전경란, "충청북도내 여대생의 의생활관리 실태조사연구", *청주교육대학논문집* 제13호(1977), pp.295-305.
- 19) 신은주, 차옥선,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 9집(1991), pp.5-23.
- 20) 윤정혜, "가정의류의 불용 재고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4권(1985), pp.253-256.
- 21) 전경란, "충청북도내 여대생의 의생활관리 실태조사연구", *청주교육대학논문집* 제13호(1977), pp.295-305.
- 22) 김윤미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의류에 대한 인식과 섬유 종류별 분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생활과학* 제 27호(1994), pp.15-18.
- 23) 김병미, 이재명,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1997), pp. 19-32.
- 24) 加藤敏子, 大森和子, 藤枝恵子, 金原ちえ子, "高等學校衣生活教育に関する考察(第1報): 高校女生徒の家庭の衣生活管理", *日本家庭學會誌* 38(7), pp.623-633.
- 25) 杉原利治(1991). 衣生活のエネルギー分析, 衣生活.
- 26) 김병미, 이재명,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1997), pp. 19-32.
- 27) 윤정혜, "가정의류의 불용 재고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4권(1985), pp.253-256.
- 28) 서영숙, 구은영, 조필교 (1997). "의복소비형태와 의류자원활용 방안",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8호(1997), pp. 148-158.

용효율성에는 연령과 구입가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김애련²⁹⁾, 황재경³⁰⁾, 신은주³¹⁾, 고선영³²⁾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와 자유 응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문 내용은 의복구매 성향을 알아보는 문항(41문항), 의류 제품 구매시 불만족한 점을 알아보는 문항(10문항), 소지하고 있는 의복과 소지기간을 알아보는 문항(27문항), 사장의복에 대해 알아보는 문항(9문항),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9문항)으로 총 96문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AS/PC Package를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의 주부 250명으로 편의 추출에 의해 표집되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1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부된 250부의 설문지 중 204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모두 18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50.8%(93명), 30대가 25.7%(47명), 50대가 16.4%(30명), 20대가 7.1%(13명)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많았다. 주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7%, 대학교 졸업이 31.7%, 중학교 졸업 이하가 12.0%, 대학원 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속 성	구 분	주 부		남 편	
		N	%	N	%
연령	20대	13	7.1	5	2.7
	30대	47	25.7	45	24.6
	40대	93	50.8	59	32.2
	50대	30	16.4	67	36.7
	60대	-	-	7	3.8
학력	중졸 이하	22	12.0	4	2.2
	고졸	91	49.7	70	38.3
	대졸	58	31.7	95	51.9
	대학원 이상	12	6.6	14	7.7
직업	사무직	17	9.3	78	42.6
	전문직	19	10.4	38	20.8
	상업/자영업	12	6.6	35	19.0
	사업	10	5.5	32	17.5
	전업주부	125	68.3	-	-
가계 월평균수입		N	%		
	100만원 미만	5	2.7		
	100~200만원	39	21.3		
	200~300만원	68	37.2		
	300~400만원	55	30.1		
400만원 이상	16	8.7			

상이 6.6%의 순이었으며, 남편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1.9%, 고등학교 졸업이 38.3%, 대학원 이상이 7.7%, 중학교 졸업 이하가 2.2%로 나타나 대체로 남편의 학력이 주부의 학력보다 높았다. 주부의 직업은 전업주부 68.3%, 전문직 10.4%, 사무직 9.3%, 상업/자영업 6.6%, 사업 5.5%의 순으로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 42.6%, 전문직 20.8%, 상업/자영업 19.0%, 사업 17.5%의 순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이 37.2%, 300~400만원이 30.1%, 100~200만원이 21.3%, 400만원 이상이 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29) 김애련, "사회계층과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

30) 황재경, "패션감각분류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중상층 중년부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31) 신은주,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32) 고선영, "의류제품의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

〈표 2〉 의복구매 성향 요인

요인명	항 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유행 추구성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한다	.68	.29	.19	-.16
	강력하고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의복을 구매한다	.61	.23	-.12	-.10
	단순한 디자인의 옷보다는 세련되고 대담한 옷을 선택한다	.60	.19	-.13	.12
	나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의복을 구매한다	.58	-.09	.07	.09
	유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한다	.56	.24	.00	.04
	옷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구매한다	.54	.06	-.07	.10
	잘 알려진 유명상표 제품을 구매한다	.54	.20	.18	-.07
	국내 의류제품보다 수입 의류제품을 선호한다	.53	.45	-.11	-.03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을 위해서 의복을 구매한다	.49	.49	-.06	.20
	나의 체형을 과시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복을 구매한다	.46	.20	.05	-.22
	매우 마음에 드는 옷이라도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하면 그 옷을 사지 않는다	-.24	.05	.08	-.07
	밝고 화려한 색보다 어둡고 눈에 덜 띄는 색의 의복을 구매한다	-.41	.30	-.08	.20
유행하는 옷보다 입어서 편안한 의복을 구매한다	-.43	-.07	.32	.03	
타인 지향성	별로 살 계획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을 나도 사게 된다	.13	.75	-.08	-.05
	친지나 동료들이 입은 것을 보고 의복을 구매한다	-.01	.72	-.10	.10
	친구들이 입는 의복과 비슷한 의복을 구매한다	-.13	.64	.04	-.01
	구매계획이 없었는데도 판매원의 권유에 의해 의복을 구매할 때가 있다	.18	.57	.11	.12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복을 구매한다	.27	.56	-.03	.10
	TV나 잡지의 패션광고를 보고 의복을 구매한다	.36	.55	-.11	-.03
	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의복을 구매한다	.17	.53	.20	-.10
	나의 취향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의복을 구매한다	-.08	.52	-.10	-.25
	전체 생활비에 비해 의복비 지출이 많은 편이다	.45	.46	-.12	.00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입은 것을 보고 의복을 구매한다	.44	.45	-.06	-.10
	사교상 필요성을 느껴서(모임, 명절 등) 의복을 구매한다	-.01	.44	-.16	.13
가격이 저렴하면 계획이 없어도 의복을 구매한다	.09	.43	.15	-.17	
쇼윈도우의 진열품을 직접 보고 의복을 구매한다	.34	.42	.30	-.03	
계절이 바뀌면 의복을 구매한다	.35	.41	-.03	.09	
실용성	가지고 있는 옷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복을 구매한다	.26	.09	.62	.18
	가급적이면 상실할인매장을 이용하거나 세일상품을 구매한다	-.32	-.03	.61	-.13
	가격이 저렴하거나 할인기간 이어서 의복을 구매한다	-.18	.05	.60	-.12
	할인 판매시 싸게 살 수 있으므로 의복을 구매한다	-.26	.14	.60	-.05
	바느질이 잘 되어 있는 의복을 구매한다	-.03	-.05	.52	-.05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 의복을 구매한다	.31	.12	.52	.02
	질감(촉감)이 좋은 의복을 구매한다	.14	-.09	.43	.05
	계절이나 모임에 맞는 적당한 옷이 없어서 의복을 구매한다	-.04	.18	.39	.32
	세탁과 관리가 편리한 의복을 구매한다	-.29	.05	.34	.16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의복만 구매한다	-.19	-.09	.29	-.14
자기 중심성	남편의 옷은 나 혼자 가서 고른다	-.01	.14	-.06	.68
	옷의 가격보다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생각해 구매한다	.20	-.11	.14	.52
	의복이 남아서 구매한다	-.29	.14	.12	-.37
	남편의 옷을 고를 때 남편과 함께 가서 고른다	.15	.01	.07	-.71
아이젠 값	7.47	3.42	2.54	1.94	
누적 분산 비율(%)	27.95	40.74	50.24	57.50	
회전된 각 요인의 설명분산	5.16	5.13	3.11	1.97	
회전된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	33.57	33.38	20.23	12.82	
Cronbach's α	0.78	0.72	0.67	0.64	

전체 공통분산(final communality estimates : total) = 15.37.

2. 의복구매 성향

1) 의복구매 성향 요인

의복구매 성향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나의 개성,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의복을 구매함, 유행을 추구하기 위해 의복을 구매함, 세련되고 대담한 의복을 선택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행추구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다른 사람이 많이 입고 다니는 의복을 구매함, 친구나 동료의 의복과 비슷한 의복을 구매함, 판매원의 권유로 의복을 구매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타인지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를 위해서 의복을 구매함, 할인판매를 이용해 의복을 구매함, 세탁과 관리가 편리한 의복을 구매함,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의복만 구매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용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남편의 옷을 나 혼자 가서 고름, 옷의 가격보다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생각해 구매함」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2) 교육 정도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주부와 남편의 교육 정도에 따라 주부의 의복구매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복구매 성향에 대한 4개 요인(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실용성,

자기중심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ANOVA-test, Scheffe-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주부의 교육 정도에 따른 유행추구성은 대졸집단이 3.098로 가장 높고 고졸, 대학원 이상,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집단을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구매시 대담하고 유행을 따르는 스타일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타인지향성, 실용성, 자기중심성 요인점수를 볼 때 대학원 이상의 주부는 오히려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학원 이상 주부의 대다수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직업의 특성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교육 정도에 따른 주부의 유행추구성은 대학원 이상 집단이 3.071로 가장 높고 대졸,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구매시 의복의 신분상징성이 학력과 정적 상관관을 보인다는 이선화와 임숙자³³⁾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타인지향성을 보면 대졸 집단이 2.888로 고졸 집단의 2.643보다 높게 나타나 대졸 남편을 둔 주부가 의복구매시 타인을 가장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주부와 남편의 직업에 따라 의복구매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복구매 성향에 대한 4개 요인(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실용성, 자기중심

<표 3> 교육 정도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F-값
주 부	유행추구성	2.622 a	2.914 b	3.098 b	2.910 ab	8.03***
	타인지향성	2.640	2.751	2.888	2.798	1.67
	실용성	3.436	3.547	3.445	3.558	1.05
	자기중심성	3.159	3.052	3.091	2.917	1.41
남 편	유행추구성	2.327 a	2.831 ab	3.021 b	3.071 bc	6.75***
	타인지향성	2.571 a	2.643 a	2.888 b	2.847 ab	3.88*
	실용성	3.450	3.540	3.498	3.357	0.84
	자기중심성	3.250	3.086	3.055	3.018	0.56

abc : Scheffe-test 검정 결과. *p<.05, ***p<.001.

33) 이선화, 임숙자, "성인남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외류학회지 제8권 3호(1984), pp. 43-56.

〈표 4〉 직업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사무직	전문직	상업/자영업	사 업	전업주부	F-값
주 부	유행추구성	2.928	3.012	2.968	2.977	2.921	0.24
	타인지향성	2.769	2.925	2.946	2.629	2.762	1.05
	실용성	3.647	3.437	3.533	3.510	3.489	0.73
	자기중심성	3.132	2.895	3.104	3.225	3.070	1.90
남 편	유행추구성	2.902 ab	3.101 b	2.776 a	3.002 ab	-	4.40***
	타인지향성	2.747	2.870	2.690	2.875	-	1.35
	실용성	3.538	3.487	3.434	3.506	-	0.56
	자기중심성	3.061	3.026	3.079	3.125	-	0.49

ab : Scheffe-test 검정 결과, ***p<.001.

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ANOVA-test, Scheffe-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주부의 직업에 따른 주부의 의복구매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편의 직업에 따른 주부의 의복구매성향은 유행추구성 요인에서 전문직 3.101, 상업/자영업 2.776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유행추구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본 조사에 응한 주부가 거의 전업주부여서 주부 자신의 직업에 의한 영향을 거의 볼 수 없는 반면 남편의 직업에 의한 영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4) 가계의 수입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가계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주부의 의복구매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복구매 성향에 대한 4개 요인(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실용성, 자기중심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ANOVA-test, Scheffe-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실용성, 자기중심성 요인은 가계월 평균 수입에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요인의 평균점수가 월평균 수입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가계에서 높이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은 주부들의 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Morganosky³⁴⁾의 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의복의 기능적 가치를 덜 중요시하고 심미적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5) 연령, 자녀수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의복구매성향 4 요인과 연령, 자녀수와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주부와 남편의 연령과 의복구매성향 4 하위영역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수는 타인지향성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타인을 의식해 의복을 구매하는 사람은 자녀

〈표 5〉 월평균 수입에 따른 주부의 의복구매 성향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F-값
유행추구성	2.862 ab	2.734 a	2.876 ab	3.108 bc	3.130 c	6.64***
타인지향성	2.429 a	2.538 a	2.720 ab	3.023 c	2.946 bc	8.31***
실용성	3.400	3.592	3.462	3.555	3.306	1.98
자기중심성	3.400	3.071	2.993	3.105	3.156	2.42

abc : Scheffe-test 검정 결과, ***p<.001.

34) Morganosky, M. A. "Aesthetic, Function, and Fashion Consumer Value : Relationships to other value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6 No.1(1987) pp.15-19.

〈표 6〉 연령, 자녀수와 의복구매 성향과의 상관관계

	연령		자녀 수
	주부	남편	
유행추구성	-.007	-.020	-.084
타인지향성	.007	-.012	-.148*
실용성	-.022	.002	.019
자기중심성	.063	.092	-.064

*p<.05.

의 수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피복비의 부담이 높아 의복구매시 타인을 고려한 의복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6) 피복비에 따른 의복구매 성향

주부, 남편, 자녀의 월평균 피복비는 〈표 7〉과 같다. 주부는 6~10만원이 31.7%, 1~5만원이 31.3%, 11~20만원이 23.0% 등의 순이었고, 남편은 6~10만

〈표 7〉 월평균 피복비

	주부		남편		자녀	
	N	%	N	%	N	%
1~5만원	57	31.1	51	27.9	54	29.5
6~10만원	58	31.7	70	38.2	53	29.0
11~20만원	42	23.0	38	20.8	51	27.8
21~50만원	23	12.6	24	13.1	20	11.0
50만원 이상	3	1.6	-	-	5	2.7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표 9〉 의복 소지수와 평균착용연수, 평균소지기간

항목	의복 소지수(벌)	평균 착용연수(년)	평균 소지기간(년) (입지 않고 있는 기간까지 포함)
외투, 코트류	4.3	4.6	7.4
자켓, 점퍼류	5.3	4.3	6.4
정장	5.0	4.0	6.1
원피스	3.5	3.1	5.0
블라우스, 스웨터, 가디건	8.5	3.6	5.7
스커트, 바지	9.3	3.7	5.6
트레이닝복	1.7	3.0	4.2
한복	2.0	5.7	8.0

〈표 8〉 피복비와 의복구매 성향과의 상관관계

	피복비		
	주부	남편	자녀
유행추구성	.276***	.209**	.094
타인지향성	.272***	.213**	.135
실용성	-.171*	-.282***	-.182*
자기중심성	.014	.007	-.093

*p<.05, **p<.01, ***p<.001.

원이 38.2%, 1~5만원이 27.9%, 11~20만원이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부와 남편의 월평균 피복비는 6~10만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자녀는 1~5만원이 29.5%, 6~10만원이 29.0%, 11~20만원이 2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부나 남편보다는 다소 낮은 1~5만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주부와 자녀에서 50만원 이상의 지출이 각각 1.6%, 2.7%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남편의 월평균 피복비가 50만원 이상이 되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주부와 자녀의 피복비가 남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피복비는 자녀들의 피복비를 모두 합한 것이므로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월평균 피복비가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부, 남편, 자녀의 피복비와 의복구매 성향과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물 〈표 8〉에 제시하였다. 주부와 남편의 월평균 피복비는 유행추구성·타인지향성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실용성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주부, 남편의 월평균 피복비가 많을수록 주부의 의복구매성향 중 유행추구성, 타인 지향성이 높고 실

용성 요인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자녀의 월 평균 피복비는 실용성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실용성을 고려하는 의복구매성향을 보이는 주부는 자녀 월평균 피복비 지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의복 소지수와 의복의 착용·소지기간

의복의 종류에 따른 소지수와 평균 착용연수, 평균 소지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를 구하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부의 의복 소지수를 살펴보면, 스커트·바지가 9.3벌, 블라우스·스웨터·가디건이 8.5벌, 자켓·점퍼류가 5.3벌, 정장이 5.0벌, 외투(코트)가 4.3벌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단품 중 하의류에 속하는 스커트·바지의 소지수가 가장 많았다. 의복의 평균 착용연수는 한복이 5.7년, 외투(코트)가 4.6년, 자켓·점퍼류가 4.3년, 정장이 4.0년, 스커트·바지가 3.7년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착용 기회가 적은 한복의 착용연수가 가장 길었다. 반면 소지수가 많았던 단품류들은 착용연수가 비교적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의복들이 착용 기회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의 평균 소지기간은 한복이 8.0년, 외투(코트)가 7.4년, 자켓·점퍼류가 6.4년, 정장이 6.1년, 블라우스·스웨터·가디건이 5.7년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한복의 소지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지 않고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소지기간으로 한 것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의복의 사장 기간은 2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복·외투(코트) 등의 의의류는 착용기간이 긴 것을 충분히 고려해 실용적이면서 너무 유행에 치우치지 않는 의복을 구매하고, 관리와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장기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생이나 이웃에게 물려주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그냥 버려지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지 않으면서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옷장에 넣어두고 있기보다는 이웃·친척에게 물려주거나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의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의복구매성향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보다 바람직한 의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구매 성향은 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실용성, 자기중심성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주부, 남편의 교육 정도, 직업에 따른 주부의 의복구매 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대졸주부는 의복구매시 유행추구성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유행추구성이 타직종에 종사하는 주부의 유행추구성 보다 높았다.

셋째, 가계의 소득이 월평균 300~400만원 수준의 주부가 다른 소득층에 비해 의복구매시 유행추구성, 타인지향성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수에 따라 타인지향성 요인에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나 자녀의 수가 적은 주부일수록 의복구매시 타인을 의식해서 의복을 선택했다. 주부와 남편의 연령과 의복구매 성향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주부와 남편 모두 월평균 피복비는 6~10만원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자녀의 피복비는 1~5만원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주부와 자녀의 피복비가 남편보다 많았으며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월평균 피복비가 많았다.

여섯째, 주부, 남편, 자녀의 피복비와 주부의 의복구매 성향과의 상관관계에서 주부와 남편의 피복비 지출이 많을수록 유행추구, 타인지향적인 의복을 구매하였고 피복비의 지출이 적을수록 실용적인 의복을 구매하였으며, 자녀의 피복비 지출이 적을수록 실용적인 의복을 구매하였다.

일곱째, 의복의 종류에 따른 소지수는 단품류가 8벌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한복이 1벌 이하로 가장 적었다. 평균 착용연수는 착용기회가 적은 한복과 의의류가 다른 의복 종류에 비해 길었다. 그리고 입지 않고 있는 기간까지 포함한 의복의 소지기간은 대부분이 착용연수보다 2년 정도가 더 길어 2년을 의복의 평균 사장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전업주부가 많았는데,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복 착용시 불편한 점이나 사장의복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조사가 함께 병행되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계선자 (1993). 기혼여성의 충동구매행동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논문집*, 제34권.
- 고선영 (1992). 의류제품의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윤미 등 (1994).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의류에 대한 인식과 섬유 종류별 분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생활과학* 제27권.
- 김병미, 이재명 (1997).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 김여련 (1985). 사회계층과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1978). 사회계층과 의복형태: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권 제2호.
- 김태배 (1988).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서 주부가 인식한 부부역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1995). 의복착용상황과 소비자특성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인과적 관계, *복식학회지* 제26권.
- 서영숙, 구은영, 조필교 (1997). 의복소비행태와 의류자원활용 방안,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8호.
- 송미령 (1988).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서울, 부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2권 제1호.
- 신상옥 (1976). 도시주부의 의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제3호.
- 신은주 (1989).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 차옥선 (1991).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 제9권.
- 엄정은, 이명희 (1995). 여성의 의복구매동기와 구매 후 불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4호.
- 유봉로 (1972). 판매전략을 위한 시장세분화 연구, *연세논문* 제9집.
- 윤정혜 (1985). 가정의류의 불용 재고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4권.
- 이경남, 이인자 (1986). 사춘기 여학생의 의복의 동조성, 인식도, 만족도와 가정배경 및 학습내 인기도간의 상관관계, *한국의류학회지* 제10권 제1호.
- 이금실, 강혜원 (1978).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 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서울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권 제2호.
- 이금실, 문영애 (1984). 주부들의 의복행동과 피복 관리에 대한 태도 및 관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제1호.
- 이선화, 임숙자 (1984). 성인남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제3호.
- 전경란 (1977). 충청북도내 여대생의 의생활관리 실태 조사연구, *청주교육대학논문집* 제13권.
- 황재경 (1987). 패션감각분류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중상층 중년부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orm, W. R. & Stone, G. (1957).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2.
- Foster, A. C. & Metzen, E. J. (1981). "Wife's earning and Family network pos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2.
- Kundell, C. (1976). "Clothing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blue-collar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4, No.4.
- Morganosky, M. A. (1987). "Aesthetic, function, and fashion consumer value: relationships to other value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6, No.1.
- 加藤敏子, 大森和子, 藤枝恵子, 金原ちえ子 (1987). 高等學校衣生活教育に関する考察(第1報): 高校女生徒の家庭の衣生活管理, *日本家庭學會誌*, Vol.38, No.7.
- 杉原利治 (1991). 衣生活のエネルギー分析, *衣生活*.